

2015. 6.13. 서울시 9급 국어 총평과 해설

남부고시학원 정채영

서울시 시험은 문법 9문제, 어휘 5문제 독해 6문제의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출제되었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중’정도이다. 국가직에 비해 비문학 독해보다는 문학 독해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과,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각 분야별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문법 영역에서는 이론 문법의 경우 국어의 특질과 훈민정음 제자원리가 각각 1문제가 출제되었고, 음운 특징, 접사의 기능, 어휘의 의미 등이 출제되었다.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어휘 영역에서는 한자어의 표기, 한자성어의 이해, 속담의 적용, 순우리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독해 영역에서는 글의 서술 방식, 글의 논리적 배열 그리고 시어의 의미와 시의 주제 등이 출제되었다.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덩쿨 - 눈두덩이 - 놀이감
- ② 잊어른 - 호루라기 - 판지
- ③ 계면쩍다 - 지리하다 - 빠지다
- ④ 주책 - 두루뭇술하다 - 허드레

④

‘주책, 두루뭇술하다, 허드레’는 표준어이다.

- ① ‘덩쿨’은 ‘넙쿨 / 덩굴’로 ‘놀이감’은 놀잇감’으로 고쳐야 한다.
- ② ‘윗어른’은 ‘웃어른’으로 고쳐야 한다.
- ③ ‘지리하다’는 ‘지루하다’로 고쳐야 한다.

2.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① 보기 ② 낮섭
③ 낮추다 ④ 꽃답다

②

‘ㄹ’은 ‘꿈’처럼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거나, ‘배푼’처럼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데, ‘낮설’은 후자의 경우로 ‘낮설다’의 어간 ‘낮설-’에 어미 ‘ㄹ’이 붙어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3.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 XAY → XBY(대치)
 - ㉡ XAY → X○Y(탈락)
 - ㉢ X○Y → XAY(첨가)
 - ㉣ XABY → XCY(축약)

<보기>

술+하고 → [손하고] → [소타고]

(가) (나)

- ① ㉠, ㉡
 - ③ ㉡, ㉣

- ② ㉠, ㉣
 - ④ ㉣, ㉡
- ②
- ‘술하고’가 ‘[손하고]’로 변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치’에 해당한다. ‘[손하고]’가 ‘[소타고]’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ㄷ’과 ‘ㅎ’이 만나서 ‘ㅌ’으로 변하는 ‘축약’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치, ㉣축약이 적절한 답이다.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껄불은 아니 꺾겠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 ①
- ‘-ㄴ망정’은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② ‘있을 지라도’의 ‘지’는 어미이므로 ‘있을지라도’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③ ‘예쁜대신’의 대신은 의존 명사이므로 ‘예쁜 대신’과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④ ‘들을 지’의 ‘지’는 어미이므로 ‘들을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5.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 ②
- 국어의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 중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 ①,③,④는 문장 구조론의 범주로 ‘통사적 특징’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 ②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③ 쇼파 - 씽크대 - 바디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 ④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팸플릿

④

- ① 팜플렛 → 팸플릿
- ② 리더쉽 → 리더십, 소세지 → 소시지
- ③ 쇼파 → 소파, 씽크대 → 싱크대, 바디로션 → 보디로션, 스카웃 → 스카우트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숫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③

- ① 열두 번째의 의미는 ‘열두째’이고, 열두 개째의 의미는 ‘열둘째’이다. ①은 열두 번째의 의미므로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두째이다.”처럼 쓴다.
- ②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는 뜻으로는 ‘털어먹다’를 써야 한다.
- ④ ‘수평아리’가 바르다. 표준어 규정 제7 항에서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날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① 상실 : 喪失
- ② 성장 : 盛裝
- ③ 이상 : 異狀
- ④ 해동 : 解冬

①

- ‘상실(喪失)’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의 뜻으로 문맥상 바르게 쓰였다.
- ② 성장(成長):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성장(盛粧): 얼굴과 몸의 꾸밈을 화려하게 함.
- ③ 이상(異常):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 ④ 해동(解凍):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해동(解冬): 동안거(冬安居)의 끝. 선원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끝난다.

9.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찢겨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이 찢겨져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잃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잊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 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제시문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묘사’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각각 ① 서사, ③ 유추, ④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10.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ㄴ - ㄹ - ㅁ - ㄱ - ㄷ
- ③ ㄴ - ㅁ - ㄱ - ㄷ - ㄹ
- ④ ㅁ - ㄹ - ㄱ - ㄷ - ㄴ

③

- ㄴ- 도입 단락으로 미래에의 낙관적 전망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ㅁ- 낙관적 전망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ㄱ- 심각한 현상의 하나로 자연 환경의 파괴를 들고 있다.
- ㄷ- 심각한 현상의 또 다른 측면으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들고 있다.
- ㄹ- 낙관적 전망의 위험성에 대해 논지를 요약하고 있다.

11.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

① 원인 - 결과
② 보편 - 특수

③ 일반 - 사례
④ 주장 - 근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한다. (결과)

③ 『엄마의 말뚝』은 일제 말과 6.25 전쟁을 관통해 어머니의 투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딸의 성장 과정에 따라 '체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쟁 당시의 상황과 현대의 서울을 병치시켜,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① ⑦ ② ④ ③ ⑤ ④ ⑥

④

㉠ ‘뭉락카노’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어휘이고, ㉡ ‘바람’은 화자와 상대방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다. ㉢ ‘씩어서 동아 밧줄이 삭아 내리는데’는 죽음으로 인해 이승에서의 인연이 소멸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14.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방안에 췌는 촛불 놀과 이별 하였관디,
 갓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더 촛불 갓트여 속타는 줄 모르도다

-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 다정도 병인냥하여
 줍 못 드러 호노라
- ② 한 손에 막디 잡고 또 한 손에 가식 쥐고 /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디로
 칠엿튼이 / 백발이 제 몬져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 ③ 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날 싱각는가 / 千里(천 리)에
 외로운 썸만 오락가락 호노매
- ④ 밋을 사름들하 올한 일 호자스라 / 사름이 되어 나셔 올티웃 못하면 / 밋쇼를 갓 곳갈 식
 워 밥머기나 다르랴.

③

제시문은 임과 이별한 슬픔을 촛불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불안한 정치 현실 속에 어렵게 지내던 단종을 걱정하며 이개가 지은 작품이다. ③의 시조 역시 계량이 지은 이별가이다. 공통된 정서는 이별로 인한 슬픔이다.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ㅂ, ㅅ, ㅇ’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ㄱㅅ, ㄷㅅ, ㅂㅅ, ㅅㅅ, ㅇㅇ’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등도 만들어 썼다.

- ① 象形 ② 加畫
③ 竝書 ④ 連書

③

제시문의 ‘나란히 써서’는 병서(竝書) 규정을 의미한다. 병서(竝書)는 훈민정음에서, 초성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로, 각자 병서 ‘ㄱ, ㄷ’ 따위와 합용 병서 ‘ㄲ, ㄸ’ 따위가 있다.

- ① 상형(象形):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
 ② 가획(加劃): 원글자에 획을 더함.
 ④ 연서(連書): 훈민정음에서, 순경음(脣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脣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 ‘몽’, ‘봉’, ‘풍’, ‘뽕’ 따위가 있다.

16.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
-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댔다.
-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④

<보기>의 ㉠ ‘타지’와 ④ ‘타서’는 ‘다의어’의 관계이다. <보기>의 ㉠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의 의미로 쓰였고, ④는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나머지 ① ② ③은 ‘동음이의어’의 관계이다.

- ①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②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③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17.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 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 ① 錦上添花
- ② 烏飛梨落
- ③ 苦盡甘來
- ④ 一舉兩得

②

<보기>는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 적절하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맞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 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8.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道聽塗說
- ② 心心相印
- ③ 拈華微笑
- ④ 以心傳心

①

‘도청도설(道聽塗說)’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② 심심상인(心心相印):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석가모니가 영산회(靈山會)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으므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19.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함
-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함

②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는 속담은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이다.

20.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봐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④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의미를 지닌다.